

# 노동부는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1. 관련 기사

- 4.20.(월) 국민일보(온라인), “사망자까지 나온 노봉법 갈등”  
한겨레(온라인), “화물노동자 참변’ CU 노란봉투법에도 교섭요구  
무시, 2억원대 손배청구...”  
한국일보(온라인), “CU 원청 교섭 집회서 배송기사 1명 사망...  
노봉법 시행 후 첫 사망 사고”  
머니투데이(온라인), “화물차 치어 조합원 숨지고 경찰 부상까지...  
CU 덮친 ‘노란봉투법’ 쇼크”  
아시아경제(온라인), “CU ‘무력충돌’ 번진 노란봉투법...편의점  
초긴장”

## 2. 설명 내용

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훈 (044-202-7620)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62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승헌 (044-202-7611)
		담당자	서기관	유현경 (044-202-7609)

